

김진성 <설득의 기술 - 아리스토텔레스의 『수사학』 1권 읽기> 8장

14장. 범죄의 크기

더 큰 부정(不正)[의 악덕]으로부터 나온 범죄가 그만큼 더 크다. [25]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[사소한] 범죄가 [더러는] 가장 큰[중대한] 범죄일 수 있다. 예를 들어, 칼리스트라토스가 신전의 관리관들을 속여 신성한 은화 세 닢을 횡령했다며 멜라노포스를 고소한 경우처럼. 그러나 정의(正義)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. 그리고 그러한 점은 [큰 범죄가 작은 범죄 안에]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. 신성한 은전 세 닢을 훔친 사람이라면 어떠한 범죄라도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. 더 큰 범죄는 이런 식으로도 [30] 판정되지만, 때로는 피해로부터 판정된다. [범죄자에게 주는] 벌이 [피해와] 같지 않고, 어떤 벌이라도 작은 범죄가 [더 큰 범죄다]. 그리고 [피해의] 치유가 없는 범죄도 [더 큰 범죄다]. 그런 범죄는 [치유하기가 또는 제대로 처벌하기가] 어렵기,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 호소할 수 없는 범죄도 [더 큰 범죄다]. 그러한 범죄는 [그 피해가]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리고 재판은 일종의 징벌이자 치유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크게 해(害)를 가했을 때에도 [더 큰 범죄다]. [35] 왜냐하면 가해자가 더욱 더 크게 징계 받아야 옳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소포클레스가 모욕당한 뒤 스스로 목을 찔렀던 | 에우크테몬을 변호하면서, 이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해보다 덜한 벌을 [가해자에게]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

그리고 단독으로 했거나 최초로 했거나 몇 사람과 함께 저지른 것[범죄]도 [더 큰 범죄다]. 그리고 같은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것도 [더 큰 범죄다]. 그리고 방지수단 및 처벌수단을 탐구하고 발견하게 만드는 범죄도 [더 큰 범죄다]. [5] 예를 들어, 아르고스에서는 처벌 받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법이 발포되었고,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감옥이 지어졌다. 그리고 더 잔인한 범죄도 더 크다.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도 더 크다.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동정보다는 [직접적으로] 두려움을 더 느끼는 범죄도 [더 큰 범죄다]. 그리고 연설술의 방법들은 바로 그렇게 [강조]하는 것들이다. 이를테면, 어떤 사람이 많은 [옳은] 것들, 예를 들어 맹세, 약속[에 의한 약속], 언약, 혼인서약을 [10] 파기하거나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. 왜냐하면 이는 지나치게 많은 그런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범죄자가 처벌받는 곳[법정]에서 죄를 범하는

것도 [더 큰 범죄다]. 위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한다. 법정에서조차 죄를 범한다면 어디서든 죄를 범하지 않겠는가? 특히 [범죄자에게] 무엇보다 수치심이 일어나는 범죄들도 [더 큰 범죄다].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[더 큰 범죄다].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, 은혜를 되갚지도 않는다는 [15] 점에서 더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쓰여 있지 않은 옳은 것[불문법]들을 위반하는 범죄도 [더 큰 범죄다]. 더 나은 사람이라면 강제되지 않고서도 올바르게 때문이다. 그런데, 쓰여 있는 것[성문법]들은 강제적인 것이고,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은 강제적이지 않다. 그러나 달리 보면, 쓰여 있는 것들을 위반하는 범죄가 [더 큰 범죄다]. 왜냐하면 두려움이, 또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이 따르지 않는 범죄들도 [20]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. 더 큰 범죄와 더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해 두자.

15장. 재판연설의 기술외적인 설득수단

지금까지 말한 것들에 이어, 이른바 기술 외적인 설득수단들을 훑어보는 일이다. 그것들은 재판연설에 고유하기 때문이다. 그것들의 수는 다섯으로, 법, 증인, 계약, [25] 고문[에 의한 자백], 선서가 있다.

먼저, 법에 관련하여, 어떻게 이것들이 권고하거나 만류하는 데에, 그리고 변론하거나 고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지 말해 보자. 왜냐하면 한편으로 분명히, 쓰여 있는 법[성문법]이 실제 사실에 반대된다면, 공통된 법과 더 공정한, 말하자면 더 정의로운 것[해석]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[재판관의] ‘최선의 판단에 의해’[또는 ‘법에 따라’]란 [30] 말[선서]은 쓰여 있는 법들을 전적으로[절대적으로] 사용하지는 않음을 뜻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공정한 것은 항상 그대로이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, 공통된 법도 변하지 않지만(자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), 쓰여 있는 법들은 자주 변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이로부터 소포클레스의 [비극] 《안티고네》에 나오는 말들도 비롯했다. 그녀[안티고네]는 [테바이의 왕] 크레온의 법[명령]을 어기고 [그에 맞서 싸우다 죽은 오빠를] 매장했지만, 쓰여 있지 않은 법[불문율, 천륜]을 [35] 어기진 않았다고 스스로를 변호한다.

1375b 그것[신들의 불문율들]은 지금 어제만이 아니라, 늘 어느 때나
 [살아 있고] ...

연설술 1권(A)

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[크레온] 때문에 [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]
그리고[신들 앞에서 벌 받고] 싶지는 않았습니다.

그리고 옳은 것은 참이고 이롭지만, 옳은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은 그렇지 않다고, 따라서 쓰여 있는 법도 법의 [진정한] 기능을 다하고 [5]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재판관은 거짓으로 옳은 것과 진정으로 옳은 것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은을 감정하는 사람과 같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라면 쓰여 있는 법들보다는 쓰여 있지 않은 법들을 사용하고, 이를 준수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어떤 법이 승인된 [다른 어떤] 법과 상충하는지,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상충하는지 [살피보아야 한다]. 예를 들어, 때때로 어떤 법은 계약된 것들은 [10] 무엇이든 구속력이 있다고 명하지만, 어떤 법은 법을 위반하여 어떤 것을 계약하는 일을 금하는 경우처럼. 그리고 만일 어떤 법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, 그것을 요리조리 살피면서 그것이 어느 쪽의 뜻에, 옳음이든 이로움이든, 들어맞을지 볼 수 있도록 [그 법을 사용해야 한다]. 그런 다음에 그것[적절한 의미]를 사용해야 한다. 그리고 어떤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던 상황이 더는 남아 있지 않는데도 그 법은 남아 있다면, [15] 이를 밝히도록 하고, 이로써 그 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.

다른 한편으로, 쓰여 있는 법이 해당 사건에 일치한다면, ‘최선의 판단에 따라’라는 말은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, [재판관이] 법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위증하게 되지 않고자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. 그리고 아무도 일반적으로 좋은 것[공동체의 선]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것[개인의 선]을 선택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[20] 그리고 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’는 것과 ‘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’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다른 기술들에서도, [예를 들어, 의술에서] 의사[전문가]보다 똑똑해지려고 해봐야 득이 없다고 [말해야 한다]. 왜냐하면 의사의 실수는 권위자에 복종하지 않는 [환자의] 습관에서 생기는 해로움만큼 해롭지 않기 때문이다. 그리고 법들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, 이것은 찬양되는[좋다고 인정되는] 법들에서는 [25] 금지되어 있다고 [말해야 한다]. 법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해 두자.

증인에 대해서 말하자면, 증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옛날의 사람들이고, 다른 하나는 최근의 사람들이다. 그리고 뒤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[위증죄의]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들이고, 어떤 사람들은 그것 바깥에 있다. 여기에서 ‘옛날의 증인들’이란 시인들과 명료한 판단을 지닌 여타 저명한 인물들을 말한다. 예를

들어, 아테네인들은 [30] 살라미스[가 자신들의 섬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호메로스를 증인으로 삼았고, 테네도스인들은 최근에 코린토스 출신의 페리안드로스를 시게이 온들에 대항하여 [증인으로] 삼았다. 그리고 클레오폰은 크리티아스[4세]에 대항하여, 그의 집안이 옛날부터 제멋대로 구는 집안이었다고 말하면서, 술론의 비가(悲歌)들을 사용했다. 그렇지 않았더라면, 술론은 다음과 같은 시구를 결코 짓지 않았을 것이라며.

날 위해 붉은 머리 크리티아스[2세]에게 부친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시오.

[35]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증인들이지만, 미래의 일들에
1376a 대해서는 또한 신탁 해석자들이 증인들이다. 예를 들어, 데미스토클레스는 ‘나무로 된 성벽’을 언급하면서 [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] 해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. 더 나아가, 속담도,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, 증언이다. 예를 들어, 누군가가 늙은이를 친구로 삼지 말라고 조언한다면, 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증언이 된다.

결코 늙은이에게 잘 해주지 말라.

그리고 [누군가가] 아버지들을 죽였으면 아들들도 죽이라고 [조언한다면], [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증언이 된다].

아비를 살해하고도 아들들을 살려두는 자는 어리석다.

최근의 증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렸던 저명한 사람들이다.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들은 같은 일들에 관련하여 다투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에우불로스는 [10] 카레스를 고소할 때, 플라톤이 아르케비오스에게 말했던 것, 즉 자신이 악하다고 자인했다는 말[소문]이 도시에 늘어났다는 것을 법정에서 썩먹었다.

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, [위증죄의] 위험을 부담하게 될 사람들도 [최근의 증인들이다].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, 즉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, 그렇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증인들이다.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, [15] 예를 들어 옳은지 그른지,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아니다.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을만한 증인들이고, 가장 믿을만한 증인들은 옛날의 사람들이다. 이들은 매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.

증언의 신빙성에 관련하여 말하자면, 증인을 갖지 못한 사람은 [재판관] 개연적인 것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는 ‘최선의 판단에 따라’가 의미하는 것이라고, 개연적인 것들은 [20] 돈으로 매수될 수 없다고, 그리고 개연적인 것들은 위증으로 선언되지 않는다고 [말해야 한다]. 증인을 가진 사람은 증인을 갖지 못한 사람에 맞서, 개연적인 것들은 재판에 걸린 것들이 아니라고, 논변들을 토대로 [사건을] 관찰하는[심리하는] 것으로 충분하다면 증인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[말해야 한다]. 증인들 중 어떤 것들은 [그것들을 제시하는 사람] 자신에 관련되고, 어떤 것들은 소송 상대방에 관련된다. 그리고 어떤 것들은 [25] 사실[사안]에 관련되고, 어떤 것들은 [도덕적] 성격에 관련된다. 그러니 분명히, 유용한 증언이 부족할 일은 결코 없다. 왜냐하면 사실에 관련되어, 자신[의 입장]을 지지하는 증언이나 소송 상대방에 반대되는 증언이 없다고 하더라도, 성격에 관련하여 자신의 덕망이나 소송 상대방의 악성에 관련된 증언은 [언제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]. 증인에 관련된 다른 [30] 문제들 —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, 또는 평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 등의 차이점들 — 은 우리가 그를 토대로 엔튀메마[연설술의 추론]들을 구성하기도 하는 동일한 [개별적인] 토포스[지침]들로부터 말해야 한다.

계약에 대해서 말하자면, 논변들은 그것[의 중요성]을 부각 또는 축소하거나, 믿을만한 것 또는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드는 정도까지 — 계약이 자신의 입장을
1376b 지지한다면, | 믿을만하고 유효한 것으로, 소송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반대
의 것으로 만드는 정도까지 — 사용될 수 있다. 그런데, 계약을 믿을만한 것으로 또는 믿지 못할 것으로 정립하는 것에 관한 한, 증인들에 대한 취급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. 왜냐하면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나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이 [5] 어떤 성격의 사람이나에 따라, 계약의 신뢰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. 계약이 있다는 점이 동의되는 경우,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, 이를 부각시켜야 한다. 다시 말해, 계약은 개별적인[개인들에게 적용되는] 고유한 법이라고, 계약이 법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지만, 법은 법에 일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만든다고,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 자체는 [10]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신용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. 더 나아가, 많은 거래들, 특히 자발적인 거래들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, 만일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다면 사람들의 상호 교류는 없어질 것이다. 그리고 이에[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에] 들어맞는 여타의 점들은 쉽게 볼 수 있다.

[15] 그러나 계약이 [자신의 입장에] 반대되고, 소송 상대방 편이라면, 먼저, 누군가가 [자신의 입장에] 반대되는 법에 맞서 싸울 때 사용할 법한 것들[을 말하는] 것이 적합하다. 왜냐하면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자가 실수했다면, 그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, 계약에는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. 둘째, 재판관은 [20] 정의(正義)의 심판자라고 [말해야 한다]. 그러니, 그는 이것[계약조항]만 보지 말고, 어떻게 하면 더 옳을지를 보아야 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정의는 사기라든가 강제에 의해서 뒤집힐 수 없다고 [말해야 한다](정의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). 그러나 계약은 사기를 당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. 이에 덧붙여, 계약이 쓰여 있는 법들이나 [25] 공통된 법들 중 어느 것에 반대되는지[위배되는지], 그리고 쓰여 있는 법들에서는 자국의 법에 반대되는지 타국의 법에 반대되는지, 그 다음으로 이전이나 이후의 다른 계약들에 반대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. 왜냐하면 이후의 계약들이 유효하고 이전의 계약들은 무효이거나, 이전의 계약들이 옳고 이후의 계약들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. 어느 쪽이 유용할지 [검토해야 한다]. 더 나아가, 이로온 것을, 계약이 어떤 점에서 재판관들[의 이익]에 반대되는지 등의 여타 사항들을 [30] 보아야 한다. 그리고 이것들은 [앞의 것들과] 같은 방식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다.

고문[에 의한 자백]은 일종의 증언이고, [진실을 말하도록] 어떠한 강제가 가해지기에 사람들은 신빙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. 그래서 그것들에 관해서도 가능한 것[설득수단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 그런 가능한 수단들을 토대로, 자백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, 자백만이 진실한 증언이라고 주장하면서, [자백의 중요성을]

1377a 부각시킬 수 있다. | 그러나 자백이 [자신의 입장에] 반대되고, 소송 상대방 편이라면, 고문[에 의한 자백]이라는 유(類) 전체에 대해 진실을 밝히면서, [그것의 가치를]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. 강제 하에 있는 사람들은, 끝까지 참아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[고문을] 빨리 끝내고자 쉽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, [5] 진실 못지않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라며. 그리고 재판관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사례들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.

[고문[에 의한 자백]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. 많은 우둔한 사람들과 단단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혼이 강한 사람들은 강제[고문]를 고귀하게 버텨내지만, 겁이 많고 조심성 있는 사람들은 강제[고문도구]를 보기도 전에 누군가를 [범죄자로] 확신한다. 그러므로 고문[에 의한 자백]은 조금도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.]

선서에 대해서 말하자면, 그것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. 즉, (1) 선서를 요구하고 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, (2)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거나, 하나는 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는 경우가, 이 경우에서도 (3) 선서를 요구하지만 [10] 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거나, (4) 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선서를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. 더 나아가, 그밖에 달리, (5) 자신에 의해 또는 상대에 의해 선서가 [그 이전에] 있었는지의 문제가 있다.

[상대에게] 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, 그 이유로 사람들은 [자신들에게 이로울 경우] 쉽게 위증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선서를 한 사람은 이를 상대에게 [꼭] 되갚지는[선서할 기회를 주지] 않고, 재판관들이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, 그리고 재판관들은 신뢰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못하기에, [15] 재판관들에 달려 있는 위험이 더 낫다고 [말해야 한다].

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, 그 이유로 선서는 금전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, 그리고 아무 목적도 없이 악하기 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 악한 것이 더 나을 것이기에,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면 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[말해야 한다]. 선서를 한 사람은 승소할 것이고, 선서하지 않은 사람은 패소할 것이라고. 그리고 그렇게 한[선서를 거부한] 것은 위증[에 대한 두려움] 때문이 아니라 [자신의 도덕적인] 덕 때문이라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크세노파네스의 말, [20] 즉 “불경한 사람에게 그러한 [선서의] 요구를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요구와 같지 않다.”는 말도 이에 어울린다고, 그러한 것은 마치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때리거나 맞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다고 [말해야 한다].

그리고 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, 자신은 믿지만, 상대는 믿지 않는다고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크세노파네스의 말을 뒤집어서, 불경한 사람은 선서를 요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선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해야 한다.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들에게 선서한 후 재판할 것을 [25] 요구하는 것[사안]들에 관련하여, 스스로 그것[선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]을 원하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이라고 [말해야 한다].

그리고 선서를 [상대에게] 요구하는 경우에는, 신들에게 문제를 맡기길 원하는 행동이 경건하다고, 그리고 상대가 다른 재판관들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(상대에게 결정을 주기 때문이다), 그리고 다른 사람[재판관]들이 선서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에 관련하여 [상대가] 선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라고 [말해야 한다].

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[30] 분명하므로, 그것들을 짚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. 예를 들어, (4) 자신은 선서의 요구를

받아들이지만 [상대에게] 선서를 요구하지 않길 원하는 경우, 그리고 (3) 요구하지만
 받아들이지 않길 원하는 경우, 그리고 (1) 받아들이고 요구하길 | 원하는 경우
 1377b 또는 (2) 둘 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. 왜냐하면 이것들은 앞에서 말한 것[토포스]들로
 부터 결합되어 나온 것일 수밖에 없고, 따라서 논변들도 [필연적으로] 앞에서 말한
 것들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이다.

그리고 (5) 만일 이전에 자신에 의해 선서가 이루어졌고, 이것이 [자신의 현재
 선서에] 반대된다면, 위증이 아니라고 [말해야 한다]. 죄를 범하는 것은 자발적이고,
 위증하는 것은 [5] 죄이지만,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것[선서]들은 비자발적이기
 때문이라고. 따라서 정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위증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입에
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. 그러나 [이전] 선서가 소송 상대의 [현재] 입장에
 반대되게 선서되었다면, 선서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들[만사]를
 파괴한다고 [말해야 한다]. 이 때문에, 재판관들은 또한 법을 선서하면서 사용한다고
 [말해야 한다]. 그리고 “상대방들은 당신들에게 [10] 재판할 때 선서한 것들을 지킬
 것을 요구하지만, 실상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.”고 [재판관들에게 말해야 한다].
 그리고 부각시키면서 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또한 [말해야 한다]. 기술 외적인
 설득수단들에 대해서는 이쯤 해둔 걸로 하자.